



2013 하계 U대회 광주 유치위원회 공식 출범

유치위원회 사령탑 3인 인터뷰

광주 중흥 기폭제... 시민 열기가 관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주도할 유치위원회가 17일 공식 출범해 유치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정·관계 체육계, 경제계 인사 214명으로 구성된 유치위는 국내외 유치활동과 대회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유치위 출범을 계기로 하계U대회 유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유치전략 및 향후 유치 전략 등을 살펴본다.

◇유치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스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주요 도시들은 국제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2008년 올림픽 유치로 '올림픽 특수'를 만끽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과 선전(2011년 하계U대회), 러시아의 모스크바(2013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소치(2014년 동계올림픽) 등이 대표적이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부산은 또 다시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도전을 했고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하지만 광주는 그동안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다른 국내 대도시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박광태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계U대회가 유치되면 광주지역 최초이자 가장 큰 국제스포츠 행사가 될 것"이라며 "광주 유치가 확정되면 이를 계기로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U대회 유치에 따른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유발효과 9천500억원, 부가가치효과 4천5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역경제가 활짝 쫓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서남권의 중추 국제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도시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관광진흥 및 국위선양 등 부가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다. 지역체육 진흥은 물론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되는 등 지역전반에 걸쳐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도가 2012 여수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광주시가 하계U대회를 유치하면 광주·전남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잇따라 치르게 돼 '중흥'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절차와 경쟁도시=광주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초 FISU 집행위원회의 현지방문 실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를 비롯 2013년 하계U대회 유치의



국내 정·관계와 체육계, 경제계 인사 214명으로 구성된 '2013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생산유발 9천500억... 市, 첫 국제대회 유치 올인 과관·퀘백 등과 경쟁, 5월 31일 브뤼셀서 결정 올림픽·월드컵서 다진 스포츠 외교망 총가동

향을 밝힌 곳은 5개국 7개도시. 이 중에는 2년 전 중국 선전에 한 표 차이로 2011년 대회를 내준 뒤 와신상담, 세 번째 도전에 나선 러시아 과잔과 '다크호스'인 캐나다 퀘백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 에드몬튼과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의 무르시아와 비고 등도 경쟁상대다.

◇유치 전략=이처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하계U대회 유치 여부는 민선 4기 '박광태 호(號)'의 명운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시장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유치 도시가 결정되는 5월까지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 마디로 U대회 유치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유치위는 실제 투표권이 있는 FISU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 지구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2013년 세계육상선수

권대회와 2014년 동계올림픽 등이 러시아에 집중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륙간 균형안배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해당국 정부와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과 기아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등 광주 지역 글로벌 기업과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대학스포츠관계자와 FISU 집행위원간 휴먼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으로는 5년 간 3천368여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영장 등 7개 경기장과 3개 연습장을 신축하고 기존 54개 경기장도 개·보수할 계획이다. 유치위 활동을 전폭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이달 중 제정한다.

◇시민 열기가 관건=대회 유치는 시민들의 유치 열기와 의지가 관건이다. FISU의 현지 실사 때 대회 준비 상황은 물론 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중요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년에 한 번씩 흡수 연도에 열리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가입한 170여 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여해 11일간 육상, 축구 등 13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17~28세의 아마추어 대학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우정과 화합의 장이자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청년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개최도시 선정 투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광주시가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없는 데다 중국이 2011년 대회를 열게 돼 있어 아시아 국가에서 2차례 연속 대회를 여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운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개최지를 결정하는 FISU 집행위원 27명의 대륙별 분포는 유럽 13명, 아시아 7명, 아프리카 4명, 아메리카 3명으로 유럽에 절반인 13명이 몰려 있어 부담"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정부 대표가 아니라 순수 체육인사들인만큼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 구축된 한국 스포츠 외교망을 적극 활용해 광주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드림팀 구성 '광주 드림' 꼭 이룰 것"

이희범 유치위원장



"광주를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반드시 광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희범(59·한국무역협회 회장)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장은 17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창립 총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치위원회가 금호 박삼구 회장,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 등 '드림팀'으로 꾸러짐에 따라 안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며 "드림팀이 '드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유치를 위해 남겨진 4개월의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유치위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 끌어내 유치활동 뒷받침"

박삼구 후원회장



"2013년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가 최상의 조건에서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삼구(63·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 후원회장은 17일 "유치위원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광주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출신인이 위원장이 대회 유치를 맡게됨에 따라 더욱 뜻 깊다"며 "국제적인 인맥을 갖고 있는 이 위원장의 활동이 U대회 광주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스포츠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대회 유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회 유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 인사들의 힘을 모으는 방안을 찾겠다"며 "출향 인사들과 광주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반드시 광주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외교 축적 역량 모두 쏟겠다"

김운용 명예위원장



"그동안 스포츠 외교활동을 통해 축적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2013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은 김운용(77)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부위원장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반드시 광주로 가져올 것이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명예위원장은 IOC 부위원장까지 오르는 동안 88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굵직한 세계 대회 유치를 견인한 '스포츠계의 대령'으로 불린다.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유치전을 통해 스포츠 외교 역량을 발휘해온 그

는 "스포츠 대회 유치도 마지막에 '퓨팅'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힘겨운 싸움이다"며 "그러나 광주 유치도 승부인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위원장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각 스포츠 대회별로 유치전략이 따로 있게 마련이다"며 "그동안 쌓아 온 스포츠 대회 유치 노하우를 총동원해 광주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광역시 홍보 포스터. '삼다 명품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광주수산물 명품세트', '광주수산물 선물세트', '광주수산물 선물세트' 등 다양한 상품과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삼다'는 산(산채), 다(다채), 다(다채)를 의미하며, '선물세트'는 다양한 선물을 모은 세트이다.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광고. '확장이전'을 통해 '가발'을 '프리모'로 업그레이드하며, '세일 30%' 혜택을 제공한다. '프리모'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고급스러운 가발을 의미한다. '남녀가발'은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가발을 말한다.